2026년 9월 3일 제 55호

연구위원 안 혜 영
연 구 원 김 종 현
연 구 원 이 예 린

하나로연결된 모두의금융

HIF 월간 산업 이슈(9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음식료품 식품업, 해외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 상반기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주요 식품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국내 사업의 수익성 정체와 누적된 비용 부담으로 식품업계는 가격 조정을 단행
- 하반기 가격 인상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식품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요 기업의 생산라인 증설로 해외 시장의 성장기반도 강화될 전망

바이오 한미약품, 로슈와 3.2조원 규모의 비만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한미약품은 로슈그룹과 근육보존형 비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3.2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26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며 후속 기술이전 가능성도 상승
-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빅파마向 기술이전 계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바이오텍 중심의 원천 플랫폼 기술 확보와 정책 지원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할 전망

조선 韓·中·日 설비투자 압력 확대 속 중장기 수주 경쟁 심화 가능성

- 글로벌 조선업은 장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도크 수가 감소해 왔으나 최근 수주잔고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일본은 도크 증설 등 공격적인 설비투자 진행
- 국내 조선사는 공급과잉 우려로 자동화, 스마트 야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여 생산성 제고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기대. 단, 중국의 대규모 증설에 따라 중장기 신조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산업 이슈

음식료품
식품업, 해외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바이오
한미약품, 로슈와 3.2조원 규모의 비만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조선
韓·中·日 설비투자 압력 확대 속 중장기 수주 경쟁 심화 가능성

C10-11. 음식료품

식품업, 해외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연구원 이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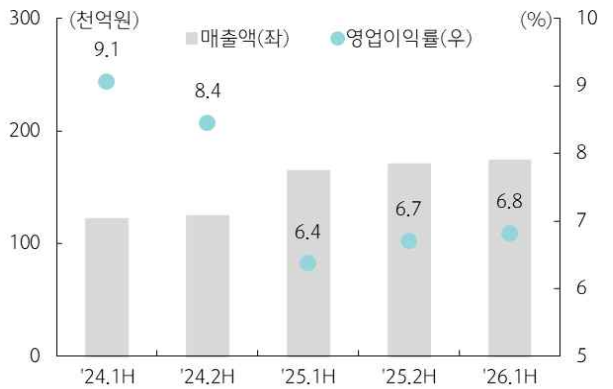
※ Summary : 상반기 주요 식품 기업은 중동 전쟁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지속. 다만 상반기 실적 개선은 내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해외 수요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국내외 사업 간 성장 격차가 확대. 누적된 비용 부담과 국내 사업의 성장성 둔화로 식품업계는 가격 조정을 단행. 가격 인상 효과와 환율 하락으로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며 하반기 식품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또한 주요 기업의 생산라인 증설로 해외 시장의 성장 기반도 강화될 전망

■ 내수 성장 둔화에도 해외 수요 확대가 지속되며 상반기 식품산업 실적이 개선

- '26년 상반기 국내 주요 식품기업은 중동 위기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지속
  -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등 주요 9개사의 합산매출액은 1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
  - 특히 삼양식품, 오리온 등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산업의 실적을 견인(삼양식품 YoY 30.1%, 오리온 YoY 15.5%)

- 상반기 실적 개선은 국내 판매량 회복보다는 글로벌 K-푸드 수요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국내 및 해외 사업 간의 성장 격차가 확대
  -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상반기 삼양식품은 해외와 국내 매출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42.4%, 16.4% 증가하고, 오리온도 해외 매출이 23.9%, 국내 매출이 1.7% 증가하며 기업 내에서도 지역별 실적이 차별화

그림1 | 주요 식품 기업 상반기 합산 실적



주 : 9개 식품사 합산 기준. CJ제일제당은 식품 사업부문 기준, 오리온은 연결 기준
자료 : Value Search, 각 사 IR자료

표1 | 기업별 국내외 사업 매출 비교 (단위: 천억원)

기업	국내			해외		
	'25.1H	'26.1H	증가율	'25.1H	'26.1H	증가율
CJ제일제당	27.6	28.2	2.4%	28.6	30.6	7.2%
삼양식품	2.2	2.5	16.5%	8.6	12.3	42.4%
오리온	5.7	5.8	1.7%	10.3	12.8	23.9%
농심	13.9	14.5	4.6%	6.5	8.1	24%

주 : 오리온은 국내외 법인별 매출 기준
자료 : 각 사 IR자료

■ 다만, 누적된 비용부담과 수익성 정체로 하반기 가격 인상이 본격화

- 해외 시장이 식품업계의 성장을 견인한 것과 달리, 국내 시장의 판매량 둔화와 고환율·고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확대
  - '26.8 주요 곡물 가격 증가율(YoY): 소맥 46.2%, 대두 19.2% 옥수수 15.5%
  - 소맥, 대두 등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포장재·물류비·인건비 등도 동반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누적

- 특히 식품업계의 원재료 조달 구조를 고려할 때, 상반기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 생산 원가에 본격 반영되며 주요 기업은 가격 조정을 단행
  - 식품 기업은 원재료를 선물·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일정 기간 재고로 보유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과 실제 매출원가 반영 사이에 시차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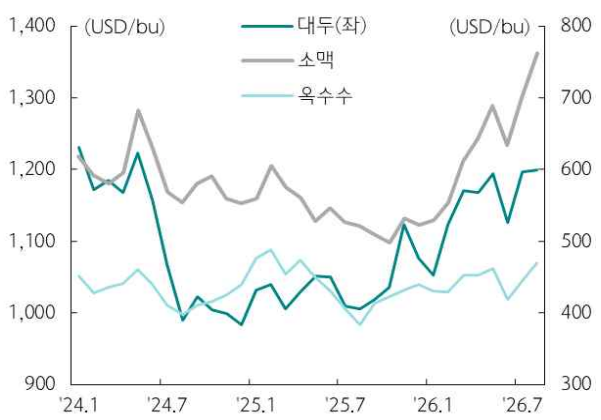
- CJ제일제당, 농심 등 주요 기업은 원가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나, 삼양식품과 오리온 등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일부 업체는 가격을 동결
  - CJ제일제당은 27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8%, 농심은 8월 용기면과 스낵류 등 43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5.8%, 오뚜기도 9월 용기면 11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6.7% 인상

■ 해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인상과 환율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

- 제품 가격 인상 효과와 원·달러 환율 하락이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 중심 기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해외 생산 및 판매 비중 확대가 환율 하락 영향을 일부 상쇄하며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또한 해외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생산 라인 증설과 유통채널 확대가 실제 공급량 증가로 연결되며 해외 사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될 전망
  - 롯데웰푸드의 7월 인도 공장 생산량 확대, 농심의 11월 수출 공장 완공 예정과 CJ제일제당의 헝가리 공장 12월 시운전 계획 등 해외 판매량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이 순차적 마련

그림2 |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추이



주 : CME(CBOT) 기준
자료 : 식품산업통계정보

표2 | 주요 기업 제품 가격 인상 동향

기업	주요 내용
CJ 제일제당	• 헝가리 공장 12월 말 시운전 후 '27년 본가동 예정 • 미국 공장 '27년 완공 및 가동 예정
삼양식품	• 중국 신공장에 라면 생산라인 8개 구축해 '27년 초 완공및 가동 예정 (기존 전체 생산능력의 40% 수준)
오리온	• 베트남 공장 10월 완공 예정이며 물류센터 신축 계획 • 러시아 제 2공장 착수해 '27년 완공 목표 • 진천 공장 '27년 7월 1단계 완공 예정
농심	• 부산 녹산에 수출용 라면 전용 공장을 10월 완공 후 3개 라인 우선 가동 예정
롯데 웰푸드	• 7월 인도 공장 생산 라인 증설 • 천안 공장 '27년 4월 설비 증설 완료 예정

자료 : 언론보도 종합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한미약품, 로슈와 3.2조원 규모의 비만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연구위원 안혜영

※ Summary : 한미약품은 로슈 그룹 자회사 제넨텍에 근육보존형 비만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을 최대 3.2조원(계약금 2,629억원)에 기술이전 하며 임상 1상 단계로는 이례적인 대형 계약을 체결함. 이로 인해 한미약품의 '26년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자사 후속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아짐.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계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바이오텍 중심의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 확보와 한층 강화된 정책 지원이 더해져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한미약품, 로슈 그룹과 3.2조 규모의 비만 신약 후보물질 관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 한미약품은 지난 8월 24일 로슈 그룹 자회사 제넨텍과 자사의 근육보존 비만 신약 후보물질인 'HM17321'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 현재 글로벌 임상 1상 진행 중이며 '27년 3월 1상 완료 후 2상부터 제네텍이 개발 승계 예정
- 총 계약규모는 향후 임상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23억 500만달러(3.2조원)에 이르며, 반환의무가 없는 선급금은 약 1.9억 달러(2,629억원)로 높게 책정
  - 임상 1상 단계 임에도 선급금 비율 8.2%를 기록하며 통상수준(1상 평균 6%, 국내 4%)을 크게 상회
- 로슈가 'HM17321'에 높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기존 GLP-1 계열 비만약의 한계인 근손실 보완과 자사 비만치료제와의 병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
  - 비만 시장 후발 주자인 로슈는 자사 근육보존형 약물 'RG6237'과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HM17321'의 병용 시너지를 통해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 선점에 나설 전망

표3 | 한미약품의 'HM17321' 기술이전 개요

항목	내용
계약 상대	• 제넨텍 (美, 로슈그룹 100% 자회사)
대상 물질	• HM17321 (근육보존 비만 신약)
총 계약규모	• 최대 $2,305bn (3.2조원)
선급금	• $190mn (2,629억원)
마일스톤	• 최대 $2.11bn (2조 9,263억원) • 임상개발 · 허가 · 상업화 단계 연동
로열티	• 시판 후 연간 순매출액 연동(비율 비공개)
권리범위	• 전 세계 연구개발 · 제조 · 상업화 독점(한국 제외)
계약 체결일	• 2026년 8월 24일
개발 단계	• 글로벌(美) 임상 1상 진행 중

자료 : 한미약품,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4 | 근육보존형 비만치료제 현황

구분	상용화 치료제 (GLP-1계열)	개발 중 치료제	
		CRF2 표적	마이오스타틴 억제
대표약물	위고비, 마운자로	HM1731 (한미→로슈) 등	비마그루맙 (릴리)등
작용기전	식욕 억제 및 소화지연	**지방억제+근육 단백질 합성** 유도	근육 단백질 분해 신호 차단
체성분 변화	근손실 동반	**지방 감량**+ **근육량/근력** 증가	근손실 차단 및 보존
투여전략	단독 투여	단독투여 및 GLP-1병용 투여	GLP-1 병용 투여
단계	글로벌 시판	글로벌 1~2상 진행 중	글로벌 2상 진행 중
차별점	체중 감량 (양적 감량)	**체성분 개선** (질적 감량)	기존 신약 GLP-1과 시너지

자료 : 한미약품, 언론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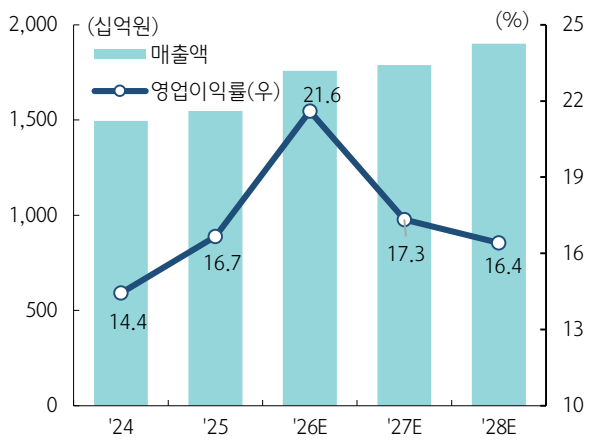
금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의 이익 규모 확대 및 차기 기술이전 기대감 고조

- 한미약품은 '26년 1~8월 기술이전을 통해 확정된 계약금만 총 3,758억원(로슈: 2,629억원, 일라이 릴리:1,129억원)에 달해 '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며, '27년 로슈가 글로벌 2상에 진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
  - 한미약품 영업이익 전망(십억원): 216('24) → 258('25) → 549('26E) → 394('27E)
- 또한 이번 로슈向 기술이전으로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개발 역량이 검증됨에 따라, 후속 후보물질('HM15275', 'HM500197')의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아짐
- 한편, 로슈는 한미약품의 'HM17321'를 확보함으로써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먼저 개발을 시작한 차세대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이은 기술이전 성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26년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형 계약이 잇따르면서, 8월 말 누적 기준 국내 기술수출 규모는 17.2조원(총 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65%를 달성
  - 한미약품 등 대형사 외에도 알테오젠, 아리바이오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의 활약이 두드러짐
- 이는 국내 바이오텍의 개발 역량 향상으로 다양한 약물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의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가 맞물린 결과임
  - 정부 또한 R&D 지원,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약 물질과 ADC(항체-약물접합체), 이중항체 등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
  - 국내 제약 ·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확대가 향후 파이프라인의 신약 허가까지 이어진다면 국산 신약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전망

그림3 | 한미약품의 실적 전망



자료 : 한미약품, FnGuide 컨센서스

표5 | '26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주요 기술이전 현황

일자	개발사	계약상대	제품	계약규모
1.21	알테오젠	테라로(미)	ALT-B4	4,200억원
3.26	알테오젠	바이오젠(미)	ALT-B4	8,675억원
5.11	큐라클맵틱스	메멘토 메디신(미)	MT-103	1.56조원
5.14	아리바이오	푸싱제약(중)	AR1001	약 7조원
6.1	한미약품	일라이일리(미)	소네페글루타이드	약 2조원
6.1	오스코텍	아지오스 파마(미)	세비도플레닙	약 1조원
8.5	알테오젠	비공개	ALT-B4	5,219억원
8.21	올릭스	한소제약(중)	siRNA	비공개
8.24	한미약품	제넨텍(로슈)	HM17321	약 3.2조원

자료 : 언론기사 정리

C31. 조선

韓·中·日 설비투자 압력 확대 속 중장기 수주 경쟁 심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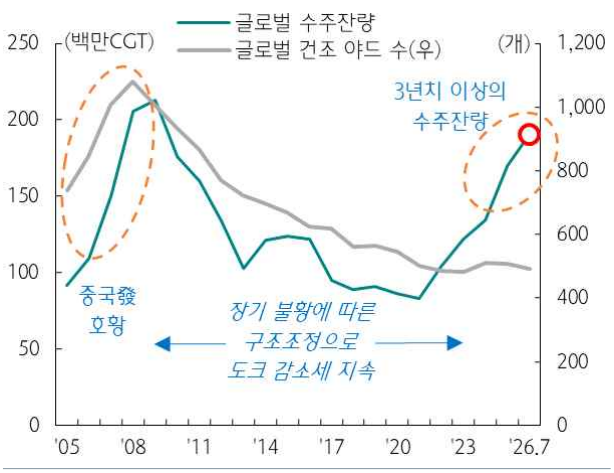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글로벌 조선업은 장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도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최근 수주잔고가 급증하면서 국내외 주요 조선사의 가동률도 100%에 달하는 등 설비투자 압력이 증가. 국내 조선사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물리적 증설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 해운사 물량을 기반으로 신규 도크를 확보 중. 국내 조선사는 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수익성이 향상될 전망. 다만, 중국 조선사의 증설 목적이 고부가 선박 시장 진입 확대로도 이어짐에 따라 韓-中 신조 수주 경쟁이 심화될 우려

■ 글로벌 조선업은 도크는 지속 감소해왔으나 수주잔고 급증으로 설비투자 압력 확대

- 최근 글로벌 조선업은 수주잔고가 증가해 왔으나 가용 건조 야드가 감소함에 따라 도크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한·중·일 주요 조선업 국가들의 CAPEX 투자가 진행 중
- 중국은 자국 선박을 자국에서 건조한다는 '국수국조(國手國造)' 정책에 따라 자국 해운사의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신규 도크를 확보 중이며 고부가 선박 진출 확대를 위한 설비도 증설
  - 헝리중공업은 건조 capa 확충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신시대 조선은 친환경 선박 수요 대응을 위해 0.9조원을 투입하여 첨단화 리모델링을 추진, 지동조선은 유휴 도크를 대거 인수
- 일본은 정부의 주도 하에 '35년까지 건조량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약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설비투자를 진행
  - 일본 조선업은 국산 LNG선 건조 재개와 건조량 확대를 위해 18년 만에 대형 신규 도크를 건설(나무라 조선소)하고, 노후 인프라의 개보수(이마바리조선)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화·로봇 공정 등을 도입

그림4 | 글로벌 조선업 수주잔고 및 가용 도크 추이



자료 : Clarkson, 각사 IR, 하나금융연구소

표6 | 한-중 조선업 설비투자 내용 비교

	한국	중국
투자 방향	보수적 리스크 관리 및 내실 경영	공격적인 외형 확장 및 인프라 투자
핵심 내용	• 노후 크레인 교체 • 블록 공정·물류 개선 • 스마트 야드 구축 • 용접 자동화 로봇 도입 • 친환경 엔진 capa 확충	• 신규 초대형 도크 신설 • 스마트 야드 구축 (3조원 이상 투입) • 10만명 이상 인력 채용
주요 목적	고정비 부담 최소화 및 공정 효율성 극대화	글로벌 점유율 압도 및 건조 가속화
글로벌 거점	미국(MRO·함정 야드), 베트남 현지 부두 확장	자국 내 대규모 친환경 선박 전문 야드 조성

자료 :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 국내 조선소는 공급과잉 우려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CAPEX 투자 진행

- 국내 주요 조선사는 과거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크 확장과 같은 물리적 증설보다는 AI, 로봇 투자를 중심으로 생산성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
  - 조선업은 경기 변동성이 높아 불황 국면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데다 2008년 이후 장기 구조조정을 거친 만큼 대규모 설비 확충에 대해 보수적

- HD현대·삼성重은 도크 확대와 같은 외형 확장보다 고부가 친환경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CAPEX 집중
  - HD현대는 기존 야드의 생산성 향상(7~8% 수준) 및 공정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디지털 전환, 노후 인프라 교체, 해양플랜트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
  - 삼성중공업은 상선 목표수주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무리한 야드 확장보다는 고부가 선박의 마진 극대화를 위해 FLNG 핵심 설계 내재화, 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베트남 등) 등의 실속형 투자를 유지

- 한편, 한화오션은 대형 상선(LNG선 등)과 특수선(군함·잠수함) 수주잔고가 도크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레인 도입과 도크 증설을 추진

■ 생산성 개선으로 실적 향상이 기대되나 증설에 따른 韓-中 수주 경쟁 심화가 우려

- 국내 조선사는 고부가 선박 중심의 수주잔고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26~'27년에 걸쳐 외형 확대와 영업이익률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
  - '26년에는 채산성 높은 고부가 선박 위주의 인도 물량으로 인해 수익성이 유지되며 '27년은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에 입입어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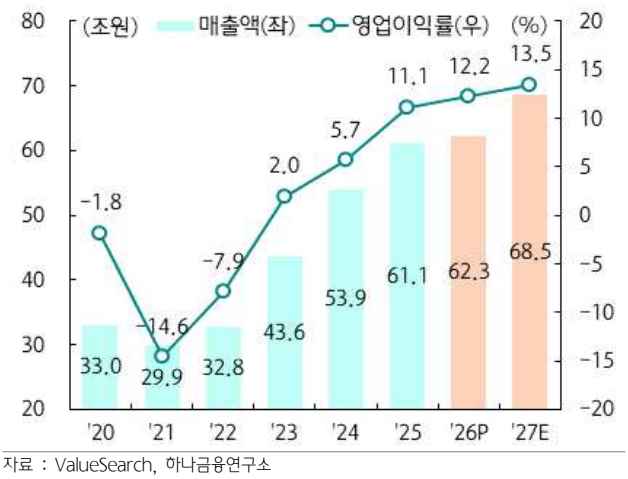
- 한편, 중국 조선사들의 공격적인 증설과 고부가 선박 시장 진입 확대로 인해 한-중 신조 수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증설에 따른 경쟁 심화 영향은 '28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 최근 3년 간 친환경 선박 발주가 활발하였으나 韓·中·日 3국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초강세 시장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주 경쟁도 심화될 전망

표7 | '26년 국내 조선3사의 설비투자 방향

조선사	투자액	설비투자 내용
HD현대	1.6조원	• 선박·엔진 처리 물량 증대를 위한 증설 • '26.2H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투자 • 노후 크레인 교체 및 해외 도크 확장
한화오션	1.1조원	• '27년까지 초대형 부유식 도크, 크레인 도입 • 외부 설비 의존도를 낮춰 건조 효율성 제고 • 美 필리 조선소 인수 및 후속 인프라 투자
삼성중공업	0.3조원	• 거제 조선소의 유휴 도크 재가동 • 스마트 조선소 고도화 및 자동화 로봇 도입 • FLNG 인프라 개선

자료 :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그림5 | 국내 조선업(외감이상)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 ValueSearch, 하나금융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